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호
2022

CONTENTS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 윤태자 : 2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 이수신 : 3
사진으로 보는 지난달 NM 한국학교 활동 : 4
2022년 상반기 순회 영사 업무 안내 : 5
바이든 대통령 첫 국정연설 : 6
지난달의 국내외 주요사건 : 7
UN총회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 채택 : 8
짬뽕교회 우리교회 | 김기천 : 9
후유증 | 이정길 : 10
How I Became Grateful for 3 Weeks in the Hospital | Christa Earl : 11
고마운 3주 입원... |Christa Earl(손세연:역): 12
코리아타운과 3.1절 | 주동완: 14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 편집부 : 15
뉴멕시코 여행기 | 송은숙 : 17
은혜 아니면! | 나정용 : 20
아프세요? | 나정자 : 22
주일예배 대표기도 | 김광철 :24
암 치료법의 종류와 작용 원리 | 최성원 : 25
더 늦기 전에 | 최미나 : 27
'오징어 게임' vs. '오징어 도박| 레베카김: 28
코로나 팬데믹..하나님의 경고인가? | 신경일: 29
영어이야기 19 / 가정.. 전기상식 | 이상목 :30
피지 선교사의 서신 | 이성일 : 32
삼성전자와 LG ... 최고 매출기록 | 김준호 : 33
뉴멕시코 한인교회/한인업소안내 : 35-37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제19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함박눈도 내렸고 덜 추웠는지 벌써 앞뜰에는 크로커스와 히아신스가 피여 봄을 알려줍니다. 올해 초 한인회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월 중순에는 하와이 이민 119주년 기념행사에 이사장님과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 참배를 하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설립한 릴리하 소재 한인기독교회도 방문하였습니다. 릴리하 양로원과 인연이 있는 저에게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마우이 섬에서는 이아오 계곡 한국 민족관을 방문하였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한국전통 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개척정신과 자존심의 상징이 되어 하와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한국을 지금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일본을 알리는 공원이나 정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한국을 알리는 장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선조들의 이민역사의 출발점이었던 하와이 이민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선조들이 힘들게 막노동하여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랑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인기독교회에 있는 이승만 전대통령 동상

1월 26일에는 구정을 맞이하여 어버이들과 음식을 나누며 즐겼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오셔서 고유의 명절을 가벼운 가무와 같이 즐기셨습니다.

한국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절하는 예절을 교육받고 복주머니를 만들고 세배를 하였습니다.

2월 4일에는 Zoom Meeting으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동포단체 회의를 영사님들과 하였습니다. 뉴멕시코 한인회에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미국 50개주 중에 멕시코와 국경을 나누며 본토의 중간에 고립되듯 있는 뉴멕시코주, 그 속에 작은 도시 알버커키는 2,0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삽니다. 많은 인구의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은 곳이 또한 뉴멕시코 한인회이기에 자랑스럽습니다. 한인회 자체 건물이 있고 어버이회와 한국학교가 부설로 있으며 올해 14회째 하게 되는 김치축제가 매년 행사로 있으며 2011년까지의 한인회 총람이 만들어져 있고 메모리얼 파크에는 한국전 휴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광야의 소리에서는 꾸준히 한인회와 지역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170개 가까이 되는 한인회가 있지만 뉴멕시코 한인회처럼 알차게 많은 업적을 남긴 곳이 드뭅니다. 전직 회장님들의 노고와 교민들의 한인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후원하는 손길이 지금까지 한인회를 이끌어 온 원동력입니다. 이 힘의 원천이 지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회는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하십니다. 3월 23일 수요일에는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어버이회 식사를 후원해 주십니다.

3월 22일에는 한국 영사 순회업무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일년에 두 번 있는 순회 업무를 필요하신 교민분들께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인회 임원들이 적극 봉사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인회관을 대여해 드리니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뉴멕시코 한인회 정회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린 미주 119주년 기념식에서

한국학교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주 학부모 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과 정월 대보름도 지나고 유난히도 바람이 강하고 잦은 3~4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뉴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해마다 떠오르는 시가 한편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시인중 한명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T. S. Elliot이 쓴 황무지 (The Waste Land)라는 것인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 1983년에 영시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처음 접한 시입니다. 이 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세계의 정신적 황폐와 그 당시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해군으로 전쟁에 참전한 절친의 죽음이라는 작가의 슬픈 개인 상황이 이 시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434줄의 장편시의 맨 첫귀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뉴멕시코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가시 달린 둥근 회전초 (Tumble weed)는 엔진은 커녕 날개도 없는 것이 온 사방에 날아다니고 사막의 미세한 모래 먼지는 마치 화산재를 연상케 할 정도로 우리가 쉼 없이 호흡하는 공기를 혼탁하게 만들곤 합니다. 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표현대로 뉴멕시코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뉴멕시코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인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시고 바이러스와 모래 먼지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고 건강한 3~4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봄학기를 개강했습니다. 지배적인 언어 (Dominant language)가 영어인 이곳에서 극소수인 우리 한인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한글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라 한글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께서는 자녀들의 한글 실력 향상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귀여운 어린이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쓰여진 글귀가 문뜩 떠오릅니다. My mom knows a lot, but my grandma knows everything. 이렇게 간단하게 씌여진 한 문장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체험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인 어르신들도 가끔씩 자조 섞인 목소리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고집도 세지고 하는데 부모들은 이 말의 의미를 생활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글을 가르쳐서 동화책도 읽고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었는데 잠시 방심하고 한글 공부를 중단하는 동안에 거의 잊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는 직접 한글을 가르쳐 보았지만, 노력에 비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글 공부 시간만 되면 왜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왜 강압적으로라도 한글 공부를 더 시켜주지 않았는지 후회 섞인 불만을 쏟아냅니다. 중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숙제도 해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위해 집중해서 시험공부도 하면서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데 한글 공부는 그러한 강제성도 없고 모르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학교는 어린이들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한글 실력을 끌어올려 쉽게 쓰여진 한글 서적들을 읽고 독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중. 고등학생들도 중단없이 한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서 헌신적인 뉴멕시코 한국학교의 선생님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비록 한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만, 정규학교를 출범시켜도 될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을 연마한 출중한 학력과 누구보다도 강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한글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거나 양육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모든 학생들을 친 자식처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수고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커뮤니티와 후세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뜨거운 감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경제적, 문화적, 시간적,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 드시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4 페이지로 계속>

<3 페이지에서 계속>

한국학교 교장 인사

시간도 함께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잘 먹고, 잘 놀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세상에 남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힘내시고 자녀들과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이수신 ■

한국어 교사 현지연수 안내 공고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재외동포 재단과 한인회의 후원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님을 초청하여 Albuquerque에서 한국어 교사 연수를 할 수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학교 교사는 물론 알버커키외 다른 지역에서 한글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직접 한글을 가르치는 학부모님 등 한글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분들을 초청합니다. 연수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학교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혹은 505-515-4677에 텍스트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5월 셋째주 토요일

장소: 뉴멕시코 한국학교

참가비는 무료이며 맛있는 점심이 제공됩니다.

추후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홈페이지 kaanm.com한국학교에 공지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난달 뉴멕시코 한국학교 활동

2022년 상반기 순회 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3월에 뉴 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날짜: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 뉴 멕시코 한인회관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 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민원수수료(반드시 현금이나 Money Order로 준비)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is planning to conduct an outreach visit to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KAANM) in March of 2022.

Date: Tuesday, March 22, 2022 (10 am – 4 pm)

Location: KAANM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When visiting the consulate, please visit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website to check the necessary documents and exact fees (only accepted in Cash or Money Order).

Webpage: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en/index.do

Phone: (213) 385-9300, extensions 221-222

Email: consul-la@mofa.go.kr

미주 한국어 교육 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미주 한국어 교육 장학재단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고자, 우수교사와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대상

우수교사 총 3명, 기념패와 상금 각 $1,000

우수장학생 총 15명, 장학증서와 장학금 각 $500

자격

자랑스런 교사상
현재 미주 한국학교에 재직하는 현직교사들 중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수상경력이 없는 우수교사

장학생
한국 학교에 다녔던 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상 된
9학년부터 12학년의 우수학생

▶ **접수기간 :** 2022년 3월 31일 목요일까지 접수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함)

▶ **시상식 :** 2022년 5월 21일 (토) 오후4시. LA 한국교육원 강당

제출서류

1) 본 재단 신청서. 2)자기 소개서. 3)학교장 추천서

2) 제출처 : E-mail. klesf.usa@gmail.com 또는,우편접수처. 946 Crenshaw Blvd, LA, CA 90019

3) 문의처 : ☎ 323-207-6715. 장학위원회 / 카카오톡 아이디: KLESF

주최 : 미주 한국어 교육 장학재단
KOERAN LANGUAGE EDUCATION SCHOLARSHIP FOUNDATION OF USA

후원 :

VOA 뉴스

바이든 대통령 첫 국정연설

VOA / 오종수 기자
2022.3.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는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제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재와 대응에 동참하는 국가로 '한국'을 한 차례 언급했으나, 북한 문제나 한반현안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일 상 · 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상 · 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동맹의 단합을 강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면서 미국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 재확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엿새 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자유 세계의 기반을 흔들기를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공은 "심각한 오산"이었다며, "그(푸틴 대통령)는 상상하지 못한 힘의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침공에 맞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두려움 없는 용기와 투지가 세계에 영감을 줬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고, 학생과 교사, 은퇴자들이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변신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직후, 방청석에 앉은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포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중에게 "기립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했고, 현장 참석자들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 푸틴 옳지 않다" 침공 규탄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고 "푸틴은 옳지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들이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배웠다"며 러시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과 함께 "푸틴에 맞서는데 단결된 상태"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이름을 나열하며,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함께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스위스 등 많은 나라들"이 대응에 함께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폐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등에 대한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6천300억 달러에 달하는 푸틴의 전쟁 자금이 쓸모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 재정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차단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러시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비난 받을 사람은 오직 푸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공을 모든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폐쇄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전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역사가 현 시대를 기록할 때,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머지 세계는 더 강하게 만드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나토 영토 1인치까지 수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서쪽으로 더 움직이려고 결정할 경우, 나토 동맹국들의 영토를 1인치까지 수호할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6천만 배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 경기 회복 강조

미국 내 현안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와중에 상당수 미국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갖가지 부양책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동안 일자리 650만 개를 창출했다며, 미국 역사상 한 해 통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년 미국 경제가 5.7% 성장해, 약 40년 만에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기간시설(인프라) 재건 사업을 역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야당인 공화당을 포함해 관련 입법에 노력한 정치권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50만개를 미국 전역에 설치하고,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며, 고속도로 6만5천 마일 구간이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 • 중국 경제와 경쟁 자신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물가와 싸우는 한 방법은 임금을 낮춰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아닌 비용 절감, 미국 내 더 많은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더 많은 상품의 빠르고 값싼 이동 등을 설명하며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통해 미국이 21세기 세계 경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페이지로 계속>

지난달의 국내외 주요사건

1월 5일 -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서 순항미사일을 포함하여 1월중 총 7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2월 4일 ~ 2월 20일 - 2022년 동계 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시에서 개최되었다.

2월 14일 -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화 통화로 중재시키려 했지만 성과 없이 협상에 실패하였다.

2월17일 - 미셸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는 건물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병원, 장기 요양 시설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유효하다고 했다.

2월 22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

2월 24일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하여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정부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했다.

24일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외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시설과 장비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면서 연기를 내뿜고 있다.

2월 28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최고조에 달하자 핵무기 운용부대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명령했다.

3월 3일 - 러시아군의 전면 침공 1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간 주민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했다.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지하철 역이 공습경보에 따른 시민들의 긴급 대피소가 되고 있다.

VOA 뉴스

유엔 총회,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에서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주요 결의안은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표결 참가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됩니다.

유엔은 이날 미국 뉴욕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결의안을 찬성 141표대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특별총회가 개최된 것은 지난 1982년으로 약 40년 만에 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승리,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를 취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이번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방국들이 결의안 제재를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한 유엔주재 장쥔 중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 투표가 온전한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지난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자, 각국 외교관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날 러시아와 북한 등 단 5개국만 반대표를 던졌다.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1/1 vote, condemning the invasion of Ukraine and demanding a complete withdrawal of Russian troops

칼럼

짬뽕교회 우리교회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우리 교회 정식 이름은 “알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입니다. 이름만 보면 한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교회는 여러 인종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에는 샘 장로님은 중국계입니다. 한국말을 못하시지요. 물론 권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중국계 권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들 가운데에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는 나바호 인디안 가족도 있지요. 물론 한국말을 못하시지만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백인 목사님으로 매주일 참석하고 계신 브라이언 목사님과 얼 주안 사모님도 있지요. 브라이언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님이시며 알버커키 베테랑 병원 원목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얼 주안 사모님은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하신 미국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교회는 이름은 한인 교회이지만 사실은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인 짬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종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당연히 모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 통용어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인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교회 내에 모든 예배나 모임에서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요. 새벽예배에도 영어통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에서도 음성 통역과 자막 통역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나 모임에서도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통역을 제공함으로 언어로 인한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통역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막 통역은 한승우 전도사님, 음성 통역은 박광종 집사님이 주로 맡아주시지요. 그 외에도 세분 정도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역에 필요한 재능 있는 일군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이지만 교인들의 대다수는 한인들입니다. 한인들 가운데 영어로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할레시아 전도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으셨던 백인 여자 전도사님이셨지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일이었지요. 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 후에 점심 친교시간이 있습니다. 할레시아 전도사님께서 교인들과 친해지고 싶으셔서 점심시간에 주로 한인 교인들이 앉아 있는 식탁으로 음식을 들고 가셨지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계시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하시고 다른 데로 옮겨가시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자기가 싫어서 모두가 자리를 피했다며 우셨지요. 나중에 알아보니 전도사님이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과 영어로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내에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인종들이 섞여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분위기가 교회 내에 정착되었지요. 영어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기에 남들 앞에서 영어로 대화할 때 혹 틀리게 말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됩니다. 더욱이 영어를 공부와 연관시켜 왔기에 영어실력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문화가 은연중에 한인들 사이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교회에서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인종은 서로 다르더라도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언어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교회 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짬뽕교회, 여러 인종들이 어우러져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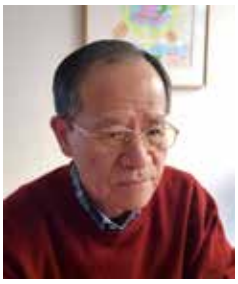
연두교서
<7 페이지에서 계속>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도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민에게 맞서는 것은 좋은 내기가 아니라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면서 “미국 건국 245년을 맞았다”며 “1년 전보다 우리는 더 강해졌으며, 우리는 하나의 미국, 하나의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수필

후유증



이 정 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병이 들면 대개 급성 증상이 나타난다. 병을 이겨 자연히 낫거나 치료를 받아서 나아 초기의 증상이 없어진 뒤에도, 흔히 기능 장애가 남는다. 어떤 한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 즉 합병증이 계속해서 존재하기도 한다. 뇌졸중 후에 남는 수족 마비나, 뇌염에 따르는 정신 · 신체 장애 따위를 후유증이라고 부른다. COVID-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약 절반이 몇 달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폐질환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면서 20년을 일한 의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침입한 SARS-CoV-2에 감염되었다. 가능한한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면서 환자를 치료했는데, 2020년 5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음식물을 삼키거나 이야기할 때 목구멍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저녁을 먹을 때는 기침이 나더니 한 시간이 지나자 체온이 섭씨 40도까지 오르는 것이었다. 애 둘과 아내를 둔 집에 바이러스를 가져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돌아보았다.

가족들도 감염되었지만 그들은 비교적 빨리 회복했다. 47세의 아주 건강했던 의사는 왼쪽 폐가 응고된 혈괴로 가득차고 머리 속이 짙은 안개에 쌓인 듯해서 입원해야 했다. 자신이 느끼기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으며, 격심한 두통과 맥을 못추게 하는 피곤이 걷잡을 수 없이 엄습해 왔다. 자기가 하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격리 중에 번번이 큰 소리로 말을 하고는 했는데, 누구와 통화했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아무 하고도 통화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몇 번인가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아내에게 말하려고 한 사실을 기억했지만, 실제 암환자였던 아버지는 2007년에 이미 세상을 뜬 사람이었다. 병세가 호전되었다 악화했다 하는 6주를 거치고 나서야 회복되었다. 하지만 몸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변해 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오래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되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의 불안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놀라운 전파력과 전에 없던 높은 치명률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는 셀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쳐 몸의 거의 모든 기관을 철저하게 망가뜨린다. 미각이나 취각의 상실 등 환자들이 감염 초기에 호소하는 일시적인 증상에 비하여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4/5가 신경계 증상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기록된 가벼우면서 흔한 증상은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등이다. 하지만 정신 착란, 우울증, 일시적인 뇌의 기능 이상에서 두통, 뇌염, 뇌의 출혈 및 응고 등도 보고되었으며, 드물지만 강도의 정신 이상도 나타났다. 치료 후에도 몇 달 간 그런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다.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사람의 정밀 검사에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발견되었다. 그 변화가 병후의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학계에서는 바이러스와 신경계 기능 이상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러스와 뇌 사이에 반드시 연관성이 존재할 것을 예상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과학자들이 놀라 관심을 갖는 것은 COVID-19 환자의 2/3에서 관찰된 뇌병 encephalopathy이다. 대뇌 수질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질병인 뇌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뇌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정신 상태를 달라지게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한다. 나이 든 환자에서 흔하던 뇌병의 증상이 젊은 환자들에서 많이 관찰되어 놀라운 것이다.

팬데믹이 선포된지 16개월만에 43,000명에 달하는 미국의 아이들이 COVID-19으로 엄마나 아빠를 잃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질 나이도 아니고, 하도 뜻밖에 당한 일이라 얼떨떨해서 정신 없이 지내다가 외짝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이들이 너무 가엾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죽음의 개념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 자칫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자식들에게 죽음을 마치 사랑에 관해 말하듯 하라고 조언한다. 어려운 일을 서로 의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죽음의 가능성에

<11페이지로 계속>

ESSAY

How I Became Grateful for 3 Weeks in the Hospital

Christa Earl (얼주안)

I've been a linguaphile from a young age, maybe it started because growing up many of my friends spoke different languages at home and school. Maybe it was because I finally got to learn a new language in an immersion style school (French). I had Korean friends in Middle and High School, so dabbled in learning from them. In undergraduate I took classes in almost every language department my small school offered and learned to read 한글 and eat 한식 from a Korean 언니 and graduate student. After starting to learn a language, I always want to become fluent, and Korean was so very different from any language I had studied before, so it was an exciting challenge. After graduating college I was offered a job in Korea and I took it, assuming it would be the perfect opportunity to learn Korean. I was teaching 4th grade English at a small private school, and spent all my energy teaching and planning. Exhausted and surrounded by English speakers, I never managed to learn more than basics to be polit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 At the end of the year I had to move back to the US to take care of my mother who was sick.

Back in Colorado, I met a dear Korean 언니 who was surrounded by English and wished she could speak more Korean. She was willing to tutor me in basic Korean until I was able to hold the most halting of conversations.

Pastor Brian Earl (VA Chaplain), Mrs. Christa Earl, Ezekiel and Evangelina

About a year later, a Korean 언니 who I had met my first year teaching, started a small curriculum company, and invited me to join it. So started my first of many trips to Korea to work for 1 month, 2 months, 3 months, and eventually about 2 years straight. It was really a tiny company, and a privilege to work with everyone there. I was the only foreigner, and our designer didn't read, write, or speak any useful amount of English, so I was able to haltingly try and describe what edits needed to happen, and how to change designs on a page. When I was living in Korea, I often lived with my coworker 언니 and her family, so I was able to practice preschool level Korean by talking to her toddler.

Near the end of my longest visa-stint working in Korea, I started having severe back pain. It slowly got worse and worse, until one weekend my 언니 and our neighbor picked me up and checked me into the 천안 대전 한방병원. It was a good thing they did; I couldn't walk, and most of my right leg had become numb due to a ruptured disk in my lower back. I had a very goood doctor who knew exactly

<CONTINUED ON PAGE 13>

후유증

<10 페이지에서 계속>

관해 에둘러서 말하거나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신경 과학자들의 관심사는, 환자들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신경 증상들이 훗날 인식력의 감퇴나 치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다. 어려움을 이긴 그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고한다. 타인과의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채식을 주로 하며, 끊임없이 운동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며, 불안이나 공포를 덜 느끼도록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요가를 수행하라고 권장한다.

부모를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친구를 가진 어린이들의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은 강한 공감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숨어 있는 그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에 관해 설명해 줌으로써 슬픔에 젖은 친구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권한다. 상실의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 주는 것이 큰 위안이 되며, 그 효용성은 실증되었다고 말해준다. ■

고마운 3주 입원 이야기

How I Became Grateful for 3 Weeks in the Hospital

원문: **Christa Earl (얼주안)**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번역: **손세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저는 어려서부터 언어를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라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프랑스어로 심화교육을 받는 학교에 다니면서 프랑스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부터가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보기도 했고 대 학생 때는 학교에 개설된 거의 모든 외국어 수업을 듣기도 하고 주변의 대학생이었던 친한 한국 언니한테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음식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항상 유창하게 잘 할 수 있었으면 했고 또 한국어는 제가 배워온 다른 어떤 언어와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만큼 더 흥미로운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작은 사립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제 주변에는 항상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정작 배울 수 있었던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해 연말에 한국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미국 콜로라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콜로라도에 돌아와서는 한국어를 그리워하는 한국인 언니와의 좋은 인연으로 기본적인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었고 그 덕에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지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후,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첫해에 만나게 된 한국인 언니의 제안으로 그분이 새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때로는 두 달 동안, 때로는 석 달 동안 일을 하다가 결국은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모든 동료들과 일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동료 중에는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의 서툰 한국어로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지 업무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 언니와 언니의 가족분들과 함께 살기도 했었는데 당시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언니의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도 한국어를 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에는 등에 시작된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그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언니와 동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천안 대전한방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서 오른쪽 다리 대부분을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은 제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 치료는 ‘벌침’ 이라는 것이었고 의사선생님께 그 단어를 듣고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과 ‘침’ 두 단어 모두 제가 알고 있는 단어였지만 동시에 한 단어로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고 그 치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려고 하셨지만 영어로 ‘honeybee’라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병원의 어떤 의사, 간호사 선생님도 저에게 영어로 치료에 관해 설명해주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영어 하기가 쑥스러웠고 제가 한국어로도 어느 정도 잘 알아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첫 번째 일주일은 극심한 통증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같이 병실을 썼던 분들 중에 인정 많은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몇 가지를 통역해주시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알아야 할 몇몇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6인 병실에서 가장 중증환자로 병실 침대에 누워 지내며 느낀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병실 환자들 사이에 쌓인 연대감과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의 항암치료를 위해 미국병원에서 보냈던 몇 년의 시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그저 안부를 묻는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반면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국 병원에서 저는 유일한 외국인 환자였고 더욱이 다른 환자들보다 나이가 훨

씬 어린 환자였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같은 병실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픈 가운데도 남아있는 에너지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나누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딸이 타향에서 다쳤다고 생각해봐. 주안씨의 아버님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겠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좀 낫겠어?". 옆 침대에 계셨던 아주머니는 병실에 계시는 동안 저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가져온 과일과 음식들을 제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제 식판을 옮겨 주시고 깨끗한 병원복과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도움을 주신 분들은 저같이 다쳐서 회복중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점차 허리 통증이 줄어들어 침대에서 나와서 잠시 앉을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병실은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 병실의 분위기야말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한글학교 캠프에 와서 앉아있다. 고 생각됐습니다. 게다가 모두 같은 깔맞춤 병원 복까지 갖춰입고 있기까지 했으니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지만 정말로 제게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영어는 사용하지도 않고 의미적이고 관계성을 가진 정말로 중요한 언어 공부와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놀랍게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 제게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최고의 장소이자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 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저에게는 처음에는 뱀을 받은 것 같은 병원 생활이 결국에는 큰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How I Became Grateful

<CONTINUED FROM PAGE 11>

what treatment I needed, but I only ever heard him speak one word of English. (He was introducing a new treatment he thought I needed: "do you know 벌침 ?" I gave him a blank look, not because I didn't know the two words, I had just never heard them together and didn't know what treatment it was. So he continued in English: "Honeybee.")

Anyway, neither he nor any of the resident doctors nor any of the nurses attempted to speak with me in English, probably because they were shy and I could understand them well enough. My first week as an inpatient I was in excruciating pain. One of the women on my ward the first night spoke English very well, and she was so compassionate to come over and translate things and help me learn the specific words I needed to use to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The thing that struck me most as I lay on my bed, the most debilitated in our 6 bed ward, was the sense of community and care that the other patients had for each other and for me. I had previously spent several years in the US visiting hospitals with my mom for all of her cancer treatments, and people would sometimes be friendly and say hello, but that was usually as far as it went. Here I was, the only foreigner inpatient in a hospital where barely anyone spoke English, plus I was also significantly younger than most of the patients. What I found was that most of the women in my ward would share their limited energy, listening ears, and resources. Repeatedly I heard them say: "Imagine if my daughter were injured and in a foreign land. Your father must be so worried. What can I do to help? How can I make it better for you here?". I heard the woman on one side of me pray for me each day she was there. Others had their family bring extra fruit or other foods to share with me. Others would carry my food tray to where we were supposed to put it, bring me clean pajamas, fill my water bottle -- and these were inpatients who were recovering from their own injuries. Eventually my pain subsided enough that I could get out of bed, sit briefly, and actually chat with people.

The atmosphere in our ward was cheerful, hopeful and friendly. One day I was struck with the image that I was sitting in my ideal language immersion camp setting-- we were even wearing matching pajamas! This image makes me laugh, but is really a picture of the wonderful gift that came out of my inpatient experience. I had no use for English there, and so finally was able to be surrounded by meaningful, relational, vitally important language study and use. There are many, many things I am grateful to God for during my time in Korea, but surprisingly my hospital stay was the best time and place for me to learn Korean. As it says in Luke 11:11 "Which of you fathers, if your son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instead?" An experience that seemed like a snake at first, ended up being a wonderful gift.

■

코리아타운과 3.1절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1914년 7월 28일부터 4년 4개월에 걸쳐 약 9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끝났다. 1차 대전이 끝나기 1년여 전인 1917년 10월 29일 뉴욕의 맥칼핀호텔에서 소약속국동맹회의가 열렸다. 세계 강국들에 의해 점령 및 압박을 받고 있던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1차 대전 이후 평화회의에 제출할 의안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재미한인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하와이의 박용만을 대표로 보냈다.

그리고 2개월 반이 지난 1918년 1월 8일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연설하였다. '평화 원칙' 제 5조는 "피지배 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자결의 원칙'이 천명된 것이다.

이 '민족자결의 원칙'은 조선의 독립 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중국에 있던 여운형은 윌슨의 '평화 원칙'이 기본이 되어, 1차 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개최된 1919년 1월 18일 파리강화회담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김규식을 파견했다. 또한 여운형과 김약연(윤동주의 외삼촌) 등이 1919년 2월초에 해외 독립운동가 39명이 서명한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선언서였다. 그리고 이 선언서를 기초한 조소앙은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 유학중이던 백관수, 이광수 등을 지도하여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500여 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외에서 고조된 조선 독립의 열기와 때마침 발생한 고종의 독살설 등이 국내의 독립 운동가들을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종로의 태화관에서 최남선이 기초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3.1만세 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지속된 만세시위는 전국 각지에서 1,214회, 총 106만여 명이 참가, 553명 사망, 1만 2천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인구가 1천 7백만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국적인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여 국내에서 활활 타오른 3.1운동의 열기는 다시 해외 동포사회로 퍼져 나갔다. 1919년 3월 13일 연변 용정 세전벌에 2만 여 명이 집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이 북간도의 3.13 만세운동은 5월 1일까지 이어져 북간도의 전 지역에서 연인원 13만 명 이상이 참여한 북간도의 한인사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국내의 3.1운동 소식이 육로를 통해 3월 8일 러시아 연해주 조선인 사회에 전달되자 대한국민의회의 문창범이 앞장서서, 3월 17일 오전 9시 우스리스크의 동흥학교 앞 광장에서 2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모여 러시아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3.1운동의 여파는 4월 11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결과를 낳았다.

또한 3.1운동은 3월 9일 현순 목사에 의해 미국에 알려졌다. 이에 서재필과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4월 14일 필라델피아 시내 리틀극장에서 각지에서 온 200여명의 한인들이 모여 조선의 독립을 위한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필라델피아 독립회관까지 시가행진을 하며 조선의 독립을 미국 주류사회에 알렸다. 이후 서재필은 '한국친우동맹', 이승만은 '구미위원부'를 만들어 미국에서 외교사업을 펼치는 한편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 활동을 돕기 위해 5백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공채표를 발행했다. 당시 하와이 노동자의 월급이 18달러에 불과했음에도 공채구입은 하와이와 미주대륙 뿐만 아니라 멕시코, 쿠바의 한인들에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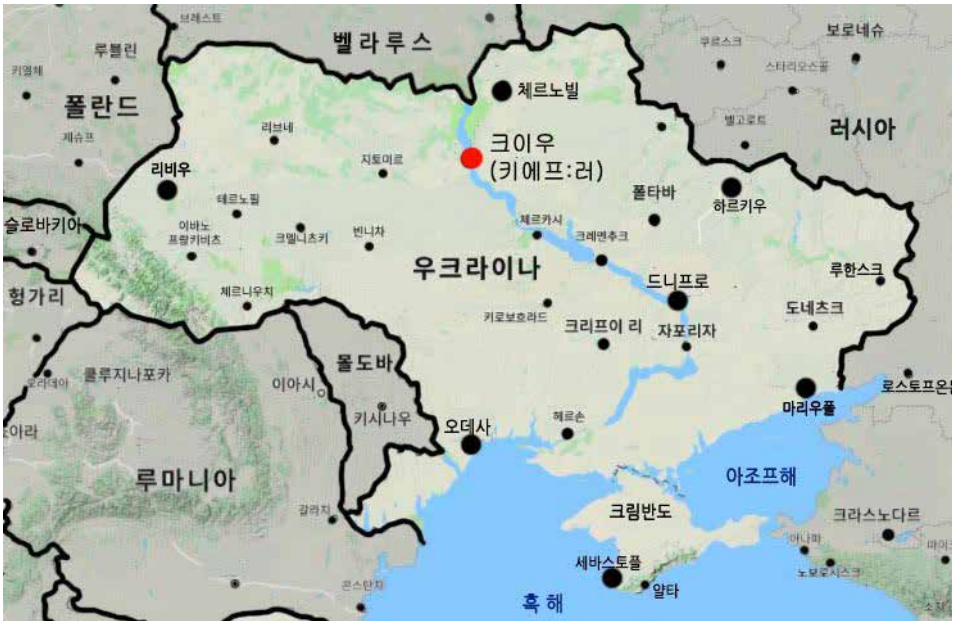
해외의 코리아타운들에서는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국내와 해외에서 합심하여 이루어진 범세계적인 한민족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기려야 한다. 특히 3.1운동에서의 해외 한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2세, 3세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해외의 한인 후손들도 3.1운동이 그냥 한국 역사책에 나오는 항일운동이나 만세 3창 부르고 끝내는 기념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민 선조들이 겪었던 '자유'를 위해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글: 편집부

위치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국가이다.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 해,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몰도바와 접한다. 수도는 크이우(러시아어로는 키예프(Kiev))이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천2백만이다.



국기

우크라이나의 국기는 하늘과 밀밭을 상징하는 것으로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이 생겨나면서 이 기를 국기로 채택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하게 되면서 이 국기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가 소련 붕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다시 국기로 채택되었다.

지리

면적은 한국의 약 6배 크기이며,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나라다. 유럽 대륙에 있는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크림 반도를 제외해도 우크라이나가 더 넓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산지가 별로 없고 토질이 매우 좋아 국토 대부분이 비옥한 옥토로 이루어져 옛날부터 세계적인 곡창 지대로 유명했다.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이었던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독보적이었고, 2011년에는 곡물 수출량이 세계 3위에 달했을 정도였다. 노란 밀밭의 풍경을 국기에 상징적으로 쓰게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흑해 연안에 있는 오데사 항구는 " 흑해의 진주(pearl of the Black Sea)" 란 별명붙은 우쿠라이나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며 크림 반도에 있는세바스토폴 항구도시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모항이 된 곳이다. 크림 반도는 2014년 2월 20일에 러시아 군에 점령 당하였고 후에 러시아와 통합되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절대다수 국가들은 이 합병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크림 반도 최남단에 있는 작은 항구도시 얄타는 얄타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유명하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영국·소련의 수뇌자들(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여 나치 독일을 소련(U.S.S.R)·미국·프랑스·영국 4국이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도인 크이우 (러시아어로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이다. 드니프로 강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구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294만명이다. 크이우는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5세기경 동슬라브인들의 도시로 시작했고,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동슬라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도시는 1240년 몽골의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후 리투아니아 대공국,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19세기 말 러시아 산업혁명의 한 중심지가 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자 키예프는 우크라이나 공화국 내에서 중요한 도시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도시는 크게 파괴되었으나, 전후(戰後) 급속한 복구를 이룩했으며, 소련 연방 내에서 제3위의 대도시가 되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자 그 수도가 되었다.

크이우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곳, 벨라루스와의 접경지대에는 체르노빌이 있다. 이곳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1986년4월 원전 폭발사고 발생으로 하마터면 인구 200만의 수도 크이우를 고스란히 버려야 할 정도의 위험에 처했다. 사고 현장은 크이우에서 불과 10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증기폭발로 원전 바닥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크이우의 상수원인 드네프르강은 그대로 오염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원전의 냉각수를 모두 빼낼 수 있어서 극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

었다.

언어

우크라이나어는 동슬라브어파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러시아어와도 매우 밀접하며 전체 인구의 약 67%가 사용하고 있다.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그리고 수도인 크이우에서는 러시아어가 더 널리 쓰인다고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학교/직장에서는 양쪽 언어 모두를 사용/병기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역사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9세기~12세기까지는 '키예프 공국'의 전성기이다. 키예프 공국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으나 12세기 이후 분열되었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러 지방 세력으로 분열되었고 주변의 몽골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 의해 지배받았다. 19세기에 이르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에 의해 합병되었다. 그후 독립을 시도한 결과 1917년에 독립을 달성하고 민족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5년 후인 1922년에는 러시아 제국에 이어 등장한 공산당 연합체인 '소비에트 연방'(소련)에 강제합병 당하고 말았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한 부분으로 근 70여년을 지배받고 살다가, 1991년 드디어 공산국가인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시 독립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국가 탄생의 연한이 31년이 지난 신생국이다.

핵무기 폐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핵무기를 상당부분 보유하게 되었다.

독립 당시에 우크라이나에는 176개의 핵미사일과 1800여기의 핵탄두가 있었다. 당시의 핵무기 보유량에 있어서 1위 러시아, 2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핵무기를 갖게 된 카자흐스탄도 141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었고, 벨라루스에도 825개의 핵탄두가 있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게 비핵화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 의회에서 1991년 11월 27일에, '협력적 위협 감소 법안'(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 '협력적 위협 감소 법안'에는 구소련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국가의 핵 폐기와 핵무기의 이송, 저장, 해체, 보관, 그리고 핵무기 폐기의 검증, 무기 해체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미국과 러시아의 비핵화 요구에 쉽게 응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쉽게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핵을 보유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으며 그 이유로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시도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없애주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고 핵폐기 비용을 전부 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여러 기술과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노력으로 1994년 12월 5일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의 4개국이 합의하여, 우크라이나의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것을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라고 한다. 이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로,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 약속'과 '4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을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체결 이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와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행하였다. 1994년에 각서를 체결하면서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였고, 결정적으로 1996년에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에 양도하였다. 드디어 1998년에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의 120개의 미사일 격납고가 해체되는 것을 끝으로,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모범적으로 완수했다.

이 CTR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국은, 1992년부터 2000년 말까지 60억 달러(6조)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보상을 위해 1992년 모스크바에 '국제과학기술센터'를, 우크라이나 크이우(키예프)에 '과학 연구센터'를 설립하여서, 우크라이나의 3만 7,000여 명의 핵무기 전문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2014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체결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주민들을 회유하고, 그곳에 자신의 군사를 불법적으로 주둔 시킴으로서 러시아의 영토로 강제 병합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돈바스 지역)의 '친러파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마찰을 빚어 왔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의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장, 안전보장과 불가침 약속을 러시아가 깨버린 것이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임제로 1번 중임이 가능하며 최대 임기는 10년이다. 2010년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를 통해 친로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승리했다. 그는 2014년 반정부 시위 결과 러시아로 도주했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다.

2014년 5대 대선에서는 친서방파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승리하여 대통령이

<28 페이지로 계속>

기행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뉴멕시코 여행기-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사장
World Express
Travel & Tour
Dallas TX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른 아침 커피 한잔을 들고 새벽길을 나섰다, 김동규 씨의 노래를 들으며 한적한 하이웨이를 달리자니, 노래 가사가 구구절절이 마음에 새겨진다. 난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할까…? 새로 구입한 SUV 차를 타고 새로운 기분을 내보려 한다, 그리고 낯선 곳 뉴멕시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청명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황금빛으로 물들여진 가을 들판, 더불어, 흰 구름처럼 영글어 터져버린 목화 꽃들은 가을 하늘을 더없이 높고 아름답게 보였다. 달라스 텍사스에서부터 7시간을 달려내려온 첫번째 도시는 칼스베드(Carlsbad) 뉴멕시코, 도시는 작고 조용했다. 긴 시간 장거리를 운전해 온 탓에 피로를 풀고 다음 날 아침에 방문하기로 했다.

칼스베드는 뉴멕시코 남부지방에 위치한 습한 사막지하 동굴이다. 약 2억 6,500 만 년 전 내해로 인해 형성된 300개의 암초 화석들이 천정에서부터 자라 내려온 암석들의 형상을 보자면 신비스럽고 자연의 위대한 경이로움을 볼수있다. 이 국립공원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과 Rattlesnake Spring Historic 2가지의 역사를 보전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살아온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옛 풍습, 유럽인들의 탐험과 정착 인디언들의 문화예술과 갈등 그리고 산업과 관광사업의 자취와 흔적을 유산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1995년 12월, 칼스베드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발을 돌려 다음 코스로 이동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오고싶었던 뉴멕시코는 생각보다는 더 조용한 곳 같다. 조그마한 낮은 집들과 긴 사막과 울창한 숲, 그리고 산들이 정겹게 어우러져 내려오는 강줄기마저, 달려가는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한다. 약 4시간에 걸쳐 도착한 곳은 하얀 모래사막 국립공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에 곱게 깔린 백사장이 생각나겠지만, 이곳 White Sand National Park만큼은 그냥 하얀 모래사막이 병풍처럼 언덕을 이루며 펼쳐있다.

약 12,000년 전 이 곳 툴라로사 분지(Tularosa Basin)의 땅에는 큰 호수, 개울, 초원, 빙하기 포유류가 있었다.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비와 눈이 녹으면서 주변의 산에 있는 석고(Gypsum)를 녹여서 분지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여름에도 가뭄이 심한 까닭에 호수물이 증발하고 물속에 녹아 있던 석고는 투명석고(Selenite Crystal)라는 수정체로 되어 바닥에 남게 되었는데, 단단한 투명석고가 풍화작용으로 부서져서 모래같이 작게 되자 바람에 불려서 어느 만큼 이동하다가 땅에 떨어져 오늘의 흰 석고 모래 언덕을 만들게 되었다. 이 모래사막은 145,762 에이커(227,89sq , 589.9km2)로 툴라로사 분지를 덮고 있으며 미 군사 미사일 시험장 지대이다. 바다와 먼 이곳이 건조해서 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수천 종류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무려 45종의 무척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흰색과 회색을 띈 특징의 동물들과 나방이 서식하고 있다. 1933년 1월 18일 Herbert Hoover 대통령에 의해 국립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등재되었다. 매년 60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모래언덕의 캠프장, 하이킹, 썰매 타기, 드라이브를 돌며 여가선용을 보내며 국립공원 레인져를 통한 다양한 설명과 안내도 하고 있다. 군사 미사일 발사 날 이 정해지면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White Sands National Park

하루가 어찌 이리 빨리 가는지. 그래도 알차게 2가지를 하루에 볼 수 있어 기쁘다. 하얀 백사장의 언덕에 올라 바다

를 내려다보는 즐거움 대신, 푸른하늘의 청평한 가을하늘 아래 끝없이 눈부신 흰 백사장의 아름다움을 관망하기에 잊을수가 없었다. 폭포를 "신부의 면사포"라고 형용을 한다면, 나는 화이트센드 국립공원은 신부의 "하얀 웨딩드레스"와 같다고 말하고 싶다… 신의 축복을 받고 환영받으며 걸어가는 모습이랄까? 아쉽게도 관객들은 코비드로 인해 적지만, 나만의 모델이 되어 카메라를 대어본다. 빨간 양탄자 대신 하얀 백사장의 나는 돗 보였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하루종일 고된 나를 위해 자연온천을 택해본다, 싸늘하고 피곤함을 따듯한 자연온천에 담가 보자. 이런 곳에 해상 노천온천이 있어서 좋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강줄기에는 연말을 앞둔 성탄절의 화려한 불빛 속에도 밤의 은하수는 찬란했다.

오늘은 어떤 곳의 신비함이 나를 설레게 할까?.., 2시간에 걸쳐 도착한 앨버커키의 도시는 제법 대도시처럼 번화했다. 해마다 10월초이면 열기구 대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3번째로 긴 단일 케이블카로 산등선을 따라 센디아 산 피크(정상)까지 뻗어 있는 트램을 타고, 산 아래의 도시를 볼 수 있는 케이블을 빼놓을 순 없다, 미주에서는 가장 긴 공중트램이다. 긴 암석 바위를 지나 산 정상인 센디아피크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자연경관을 즐겨보자. 점심은 유명하다는 뉴멕시코 전통

Sandia Peak Tramway

Bandelier National Monument. Tyuonyi ruin

음식을 먹기로 했다.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정착하면서 음식과 예술문화는 발달했고, 텍스멕스의 음식과 는 조금 다르게 토정적인 맛을 보았다. 또한, 고추농장이 많은 이곳은 수확한 고추꾸러미들을 처마에 장식하고, 풍년이든 뻘건고추들과 황금빛으로 물든 산수를 걷고 있자니, 무거운 발걸음이 한층 가볍게 그리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뉴멕시코의 상품을 만들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안내해주시며 앨버커키의 구석구석을 관람하고, 멕시코/스페인 전쟁의 요세도 답사하며, 뉴멕시코의 역사칼럼을 듣고, 보고, 탐험할수 있어서 행복했다.

뉴멕시코는, 50개 주중 5번째로 큰 주이며 210만 명이 넘는 인구밀도 46위이다. 기후와 지형은 우거진 산과 사막을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리오그란데의 강기슭을 따라 보스크 서식지와 1/3은 연방정부의 소재로, 3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많은 야생보호구역과 국가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는 보물 같은 주이다. 그중의 하나인 기념물은 반델리어(Bandelier) 국립공원이다.
1150 ~1600년 당시 이곳은 아메리카 인디언인 푸에블로족 조상들 삶의 터전으로 영구정착했던 곳이다. 오래전

Bandelier National Monument. Cave

화산분화로 인한 화산재로 만들어진 바위 암석 속에 기거하면서 농업과 무역/건축에 종사하며 발전했으나 18세기무렵 스페인의 침략으로 푸에블로 인디언 부족은 전쟁과 혁명을 거치며 고난을 겼어야 했고 스페인과 선교사들의 동맹을 끝으로 평화로운 공정을 위해 스페인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위풍당당히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를 발전 시겼다. 그중에 가장 근접하게 그들이 삶의 터전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반델리어 국립공원, 이 지역은 2/3인 23,267에이커 의 대부분은 야생지역으로 리오그란데 산맥에서부터 산 정상 Valles Caldera는 10,000ft (3,000m) 길이로 다양한 생활 구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보존되며, 민간인 보호 랜드마크이자 국가 최대규모 국립공원 관리청이기도 하다. 바위산 암벽 굴, 삶의 현장을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보니,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볼수 있었으며, 트레킹 코스를 따라 산 정상에 올라오니 흠뻑 물들어있는 황금빛 잎새

들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뉴멕시코의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열었던 것일까? 뉴멕시코에는 볼거리, 먹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로 꽉 차여진 도시이다. 그동안 내가 그들의 터전과 삶을 보았다면, 이제는 뉴멕시코의 수도이자 예술이 깃든 도시 산타

New Mexico State Capitol

페로 가 본다.

산타페는 뉴멕시코의 수도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이다. 1610년 스페인의 식민지로 설립된 중심지로서 아메리카 인디언 푸에블로 스타일의 어도비(Adobe) 건축양식을 보존하며, 창조적이고 독특한 양식과 함께 인디언/스페인 문화의 예술을 전파했다. 산타페 시내에는 1600년 전의 건축물들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1869년에 세워진 프랜시스 대 성당(The Cathedral Basilica of St. Francis of Assisi), 1610년 스페인 식민 선교교회로 세워진 센미겔 교회(St. Miguel Chapel)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혁명운동으로 인해 부서지고 재건축되었으며,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의 계단(Miraculous Staircase)

Loretto Chapel in Santa Fe

을 만들었다는 로레타 채플(Loretto Chapel)은 1873 뉴멕시코 교구가 설립되었을 당시 소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가톨릭 교육부에 탄원서를 냄으로써 시작된다. 그때, 로레토 수녀회는 이를 응하고 6명의 수녀님들을 보내 교육을 양성하기 위한 예배당을 세우게 됐으나, 그 당시 센프란시스 대성당을 건축한 동일 건축가는 파리에 있는 Saint-Chapelle 의 패턴을 따서 만들었으나 합창단위에서 아래로 연결하는 계단을 만들기 전에 사망한다. 전설에 따르면 수녀님들이 9일을 연달아 목수의 수호신인 성 요셉에게 연속된 기도를 드리고 9일 미지막 날 목수가 망

Spiral Staircase in Loretto Chapel

치와 사각 목각만을 가지고 나타나 층계를 만들어놓고, 목수는 감사와 대가도 받지 않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계단은 성가대를 오르는 층계로 보조 기둥 물이나 못 자국도 없이 위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나선형으로 정확히 360 도 2바퀴를 돌려 나무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화재이다, 더욱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완성된 이 층계를 수호신인 성 요셉의 기도 응답을 주신 기적의 계단이라 불리며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산타페 도시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곳이다, 아메리카 인디안후손들이 살고 있으면서 전통공예품이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는 곳이 많고, 붉은 색의 어도비 건축물과 에술품들의 조화로 더욱 아름다운 거리들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산타페 플라자에서는 각종 농산물들과 공예품, 수재 등을 가지고 나와 전시하면서 그들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어 흥미롭다. 전통예술이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일가? 색체감이 뛰어난 예술품들이 거리마다 가득하다. 이것뿐인가? 영화제에서도 힛트시킨 왕좌의 게임, 카사블랑카 등이 이곳에서 많은 촬영이 이루어졌고, 뛰어난 예술성과 문화를 더욱 부흥시키고자 세계의 수많은 네트워크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어 더욱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숨 가쁜 5일의 일정은 뉴멕시코를 다 돌아보기에 역부족이나, 짧은 시간 내에 다 볼 수 없어 발길을 돌린다. 아쉽게도 꼭 보고 싶었던 " 카샤카투웨 탠트락 (Kasha-Katuwe tent Rock) 국립공원을 코비드로 인해 열지 않아서 지나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이런 것이었나, 바로 옆에 보물상자를 못 보고, 항상 해외로, 먼 곳으로, 유명한 곳만을 선택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 했으나, 늦지않게 새로운 여행지를 돌아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자신을 달래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아직도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면, 숨어있는 보석을 보여드리고 싶다. ■

American Indian Museum in Santa Fe

칼럼

은혜 아니면!

나정용
뉴져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어린 시절 나의 단짝 친구네 가족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모님께서는 추위에 떨면서 지나가는 피난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에 열심이셨습니다. 아예 우리 집 마당에 커다란 솥 두 개를 걸어 놓으시고, 하나는 밥, 또 하나는 국을 끓여, 공산당의 폭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남쪽으로 살길을 찾아 내려가는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며 조금이라도 쉬어가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며칠을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등등의 말을 남기고 그들은 훌훌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 그냥 훌쩍 떠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집 근처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도우시며 우리와 가깝게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것은 금수나 다름없는 일이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 않는가?'라고 그분은 버릇처럼 되뇌곤 했습니다.

나와 동갑이었던 그 분의 큰아들, 승우는 자연히 나와 단짝이 되어 버렸고, 학교도 같이 가고, 놀기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그도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 은퇴도 했을 텐데--- 생각하며 어렸을 때 그 친구를 지금까지 그리워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의 식구들은 우리 부모님의 인도를 받아 사랑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교회 일이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 봉사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위대한 인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 이며 은혜 없는 깜깜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메다가 광명한 은혜의 세계에서 참다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고귀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은 남북전쟁(1861, 4/12 -1865, 4/9)이었습니다. 전쟁 중 무려 10,000건이 넘는 교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62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다 가시지 않고 곳곳에 남아있는 나라 입니다. 이 참혹한 내전 뒤에 숨어있는 Behind Story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북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Ulysses Grant) 장군입니다.

그는 지휘관 시절, 술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급기야 그 수치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강제 퇴역을 당하고, 결국 힘없이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도 그 나쁜 버릇을 끊어내는 데 실패 했습니다. 오히려 병적으로 악화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동시에 폐인처럼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실패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아무도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도의 사람, 링컨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를 유심히 관찰한 후 전격적으로 북군의 사령관으로 발탁하였습니다. 참모들은 빗발치듯 항의했고, 의회에서도 Grant 교체를 요구했습니다만, 링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 링컨은 Grant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Grant는 링컨의 신앙과 인품에 크게 감격 받았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경험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갚는 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다스리는 길밖에 없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투에서 참패하더라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병사들의 비명소리에 펑펑 울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무엇보다 엄청난 은혜의 능력 때문에 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그 엄청난 은혜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북군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례 받을때 수여받은 이름을 창대케 하시어 전쟁 후에는 46세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미국 제18대 대통령에 취임케 하셨고, 사람들은 그를 미국 화폐 $50지폐 속의 인물로 인쇄하여 은혜의 사람 Model로 오늘날까지 그를 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멸망한 민족입니다. 안타까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마다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것만 그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곧 잊어 버림으로써 은혜로 감격과 감사로 가득가득 차고도 넘칠 자리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 버리고 딴 길로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신작로처럼 건너게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지난 400년간의 지긋지긋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건만, 그 은혜를 곧 망각해 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몸은 종살이에서 풀려났으나, 속사람은 노예생활로 되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의 삶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금수만도 못한 삶을 영위하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 그래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 !

저는 창세기 정독과 함께 금년도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다시 확인케 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여 그랄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입니다. 실수를 거듭하는 연약함이 인간의 본질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베푸셨던 은혜를 또다시 베푸셔서, 거할 땅은 물론 많은 재물과 짐승까지 수여 받아 그들의 형편없이 실추된 지위까지 회복시켜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또 감격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민망스럽게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는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만한 자격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같이 보였습니다만---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젊어서도 실수하고, 늙어서도 또 실수하여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은혜 받도록 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익히 아시고 한량없으신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옆집의 우등생보다 비록 망나니 일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재산까지 상속해 주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야곱 같은 사람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 도주 하던 중 빈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 또는 '하늘의 문'이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추위, 들짐승, 강도의 위험과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하는 허허 벌판에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곳이 '벧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주님의 은혜 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아니면 한 시라도 살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 받은바 은혜가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 '내'가 은혜베푸는 자 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계산 법을 적용 하시어, '하나'를 포기하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면 '열'을 주시는 하늘의 계산법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내가 써버린 은혜의 품값을, 세상의 계산 방법이 아닌, 하늘 계산법으로 챙겨 주시는 그분 께서는 금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분깃을 관리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마음껏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최고의 은혜는 갈라디아(갈 6:14, 15)에서 발견됩니다. 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를 매일 매일 새롭게 창조하여 새사람 되게 하는 은혜도 십자가의 은혜 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택함 받은 유대인과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과를 차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인종차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혜)로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인종 문제도 은혜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룩한 최고의 사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의 은혜와 사랑의 '땅에 있는 하늘나라'인 공동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기존의 어떤 가치체계든지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높고 새로운 가치 기준의 새 공동체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요, 이 능력으로만 새 사회 공동체가 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Vision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우리가 발을 디뎌 살고있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1,670km/hr의 속도로 회전하며, 또한 10만 km/hr 이상의 무서운 속도로 태양 주위를 여행하고 있는 별입니다. 태양, 달, 별들도 운

<24 페이지로 계속>

수필

아프세요?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여자의 핸드백에 청진기를 댄 의사는 싱긋 웃는다. 그 안의 내용물은 코티분 콤팩트 한 개, 전당표 석 장, 구멍 뚫린 전차표 한 장.
여자: 선생님, 무슨 병인가요?
의사: 유행성 불경기 균이 작용하는 황금 부족증 히스테리올시다.'
—별건곤 1930. 11.

이것은 1930년대 문학과 문화를 공부하다가 그 시대를 살았던 중생들의 흔적을 더듬게 되었던 국문학자 전봉관의 '황금광 시대' 에 나오는 풍자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하고 많은 주제 중에 국문학자가 왜 그런 속된 주제 금광을 연구하느냐?" 라고 물으면 그는 되묻곤 했답니다. " 만일 당신의 삶에서 황금을 빼면 무엇이 남게 되겠는가?" 라고. 그러나 사실 그가 알고 싶어졌던 것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좇는 '인간' 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좇던 '사람들' 이라기에 담담히 그를 따라 그 시대를 가 보게 되었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의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져, 그 여파로 동서양이 다 물건값은 널을 뛰고, 재고는 늘어나고, 기업이 파산하는 등 지독한 불경기에 빠집니다. 그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황금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미 전국은 미친 바람처럼 서쪽으로 서쪽으로 소위 골드러쉬가 번개 치듯 할 때였습니다.
도시락을 벤또로, 손수레를 리야카로 말하던, 당시 식민지 상태의 조선! 상해 임시 정부를 통해 조국의 독립운동을 도모하느라 해외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지에선 교포들이 독립자금 마련에 거친 사탕수수 밭을 헤어나오지도 못하는가 하면,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풍년이 들면 쌀값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던 조선 농민들의 현실! 엎친 데 덮치느라 1930년 가을 들판은 더없는 풍작이었다는 것이니, 풍작 들어 죽을 지경 된 현실을 농민들은 말세의 징조로밖에 볼 수 없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 천기에 운명을 걸며 농사밖에 모르던 농민들 앞 신작로에는 자동차가 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차가 오가는가 하면, 진종일 손바닥 비벼 꼬아 짜야 하는 짚신이 아닌, 질기디질긴 고무신이 공장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판에, 한술 더 떠 사람의 혼줄을 뒤흔든 소식은 이 땅에서 질 좋은 황금이 나온다는 소식이었으니 총대만 안 메었을 뿐 전쟁 시국 같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이 하늘 된 시대가 되니 민족이나 국가, 이념만이 전부일 것만 같았던 지식인들까지, 청진기를 내 던진 의사와 법복을 벗어 던진 법관, 변호사, 펜을 놓은 작가와 전향한 사회주의자, 여성운동가 할 것 없이 다투어 금 나온다는 산으로 내 달렸다니 마치 한반도 전부가 금광인 듯 파헤쳐지는 참담한 모양새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반상이 따로 없고 식자나 무식이 관계없고 물욕의 광풍이 사람의 정신줄을 쥐고 흔드니 기생, 난봉꾼, 교수, 의사, 변호사, 당대의 정·재계 저명인사, 농사꾼 할 것 없이 그들에게 황금의 유혹보다 더 강한 이데올로기는 없었다 하니, 금 땅 위에서 살기에 더 슬픈 인생! 갈라지듯 안타까울 뿐인데, 당대를 살았던 노천명의 시 '사슴' 이 신호등처럼 깜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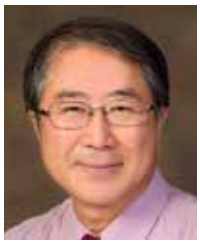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그러믄요. 그렇구 말구요! 꿀컥! 금 땅 위에 살기에 더 슬픈... 을 감기약 넘기듯 삼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고쳐 세우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나니 들립니다. 하늘의 중후한 음성! 그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는 "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분명 우리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온통 황금 광풍에 휘말려서, 피같고 자식같은 논밭을 갈아엎고 어쩌지 못해 금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이 진정으로 찾았던 것은 노다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타게 찾았던 것은 대를 이어온 배고픔과 가난, 고단함의 질곡에서 벗어날 '희망' 이었다 하니, 사방 어디에도 소리 내지 못하는 가슴을 그러쥐고 고심했을 선친들의 상황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런 세태 속에, 그 시대를 살았던 조선 희대의 금광 업자 최창학이란 사람이 한 국문학자에 의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1935년 1월6일 오후 2시.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달려온 리무진 한 대가 동아일보사 사옥 앞에 정차. 번쩍번쩍 윤기 흐르는 리무진에는 명차의 품격과 어울리는 세 명의 중년 신사 - 매일신보사 부사장 이상협 그와 동행한 중추원 참의 조병상, 그리고 대창산업 사

장 겸 조선광업회 평의원 최창학. 그리고 거기에 동아일보사 송진우 사장이 합석 승차한다.
당시 경성 거리를 누비던 승용차는 대부분 세단형 '포드' 와 '시보레'로 그 가격은 2-3 천 원 정도였으나 곡괭이 하나로 금광왕이 된 최창학의 리무진은 최고급 저택 한 채와 맞먹는 1만8천원짜리 뷰익(Buick)이었다. 18,000원이라면 평기자 봉급의 열 배에 달하는 3백 원의 월급을 받았던 송진우 사장이라도 안 쓰고 5년을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다... 조선 최초로 자동차 히터와 방탄유리까지 장착되었더라… ' (김을한, 조선 최대재벌 해부, 삼천리 1931.2.)
번번이 툭!툭! 둔탁한 돌 깨지는 소리만 들리던 조악동 돌산에 쨍! 쇳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선 최대의 금맥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지요.
1924년, 불과 서른다섯 살이 된 최창학에게는 금전판에서 잔뼈가 굵은 거친 손과 망치 하나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담한 미래가 그가 가진 것의 전부였으니, 조악동 돌산의 쨍! 소리는 허약한 그의 자제력 곧 정신줄을 홱까닥 도륙 맞는 순간이었고, 대개가 그렇듯이 분에 넘치는 과분한 행운은 그에게도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금덩이가 터져 나온다 하니 내둥 여우나 다람쥐, 승냥이의 놀이터이었던 곳이 돈 냄새에 취한 이들의 갈퀴와 도끼질에 버얼건 민둥산에 헛간 종류의 별천지가 되는가 하면, 노다지의 주인이 된 최창학은 드디어 저택을 짓습니다.
'...당시 경성 시내의 고급 문화주택의 가격이 1만 원 남짓이었는데, 그가 저택을 짓기 위해 쏟아 부은 돈은 구성 저택에 6만 원, 경성 죽첨장에 12만 원이었다. 수만금을 쏟아부은 수백 칸짜리 구성저택엔 일 년에 한두 차례 찾을 뿐 대부분은 관리인에게 맡긴 채 비워두었더라…. 1930년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이었던 최창학의 죽첨장은 이후 경교장으로 명패가 바뀌고…'
(전봉관 저, 황금광시대)
'...충정로 1가 전 경교장 주인 최창학은 거액의 자금을 1할 내지 1할 5부의 고리대금을 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 규칙 위반 등으로 기소되고...' (조선일보 1955.11.19) "여러 사람이 다 하는 일을 유독 나에게만 죄로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차마 듣기 민망하고 의식 없는 명언도 남겼다는 기록과 함께 그의 부고는 사회면 한 귀퉁이를 초라하게 장식했더라 하니 그만 딱할 뿐입니다.
얼핏 섭섭하고, 어떻게 그런 의식 없고 무익한 인생일 수 있을까? 과연 그 시절에만? 어찌 그 사람뿐이랴!... 까지 머리를 스쳐갑니다. 오죽하면 주위에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이가 없되 전혀 없을수 있을까! 평생 가져 본 적 없는 황금의 기세는 과연 어떤 것이기에 친구도 말씀도 다 거절하고 문, 빗장을 그렇게 걸어 잠그게 되었을까!
기록에 보면 삼성 금광 시절 1924년 한 해 동안에만 무장독립단의 공격을 4차례, 열흘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총칼 든 강도들을 마주쳤다니… 과연 목숨 걸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한바탕 씨름해 볼 만한 기회였고, 독립자금을 위해 상해에서 보내진 무장독립단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천만금으로도 못 바꿀, 언감생심 대주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늘!
우리는 시대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구요. 얼마나 허약한 게 사람인가를, 한번 물욕에 빠지면 흔쾌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혹 두더지만도 못 한 게 우리들인가 싶어 슬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찬란한 이 세상도, 황금도 다 맡기셨건만!
봄이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들풀이나 마른 가지를 찢고 나오는 나뭇잎들도 나름대로 살아있음을 드러내며, 그 '때'에 마땅한 반응 할 줄을 알거늘! 허잘것 없는 미물 풀벌레들도 고요한 새벽 미명을 기다렸다가 고함치며 그 살아 있음을 구가하거늘! 모든 숨 쉬는 생명들은 다 나름대로 살아있음을 감격하며 표현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아프신가요?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걸 안다면 정상입니다. 보아도, 찔려도 아프지 않다면 이미 산 생명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심히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꾸밈없고 진솔한 삶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배부르고 복에 겨운 투정들을 요만큼 다스려 올 수 있었지 싶습니다.
매년 2월이면 내겐 어김없이 떠오르고 한참씩이나 머물다 가는 이가 있습니다. '뿌리' 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뿌리요 미국에 와 살고 있는 25,000,000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조상을 찾기 시작했던 그를 만나는 2월은 그냥 한바탕의 꿈을 꾸는 듯 합니다.
북을 만들려고 나무를 자르러 정글에 갔다가 네 명의 노예상에게 붙잡혀 아프리카 잠비아 동네 쥬퍼에서 메릴랜드로 끌려오고, 버지니아 농장주에게 노예로 팔려진, 16세 소년 아프리칸 이름 쿤타킨테. 그의 8대손인 알렉스는 노예로, 해방된 노예로, 농부로, 대장장이로, 제재소 일꾼으로, 부유층의 인력거 끄는 인부로, 변호사로, 건축업자로, 그리고 한 명의 작가로 이어지는 12년간의 대작업을 '뿌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8대조 무려 200년 전 까지를, 그 대를 이어온 고통과 아픔을 다시 숨 쉬어 펜으로 We shall overcome someday~를 선창하며 매년 2월을 Black History Month로 그 끝나지 않은 삶의 의식을 뚜렷하게 일깨워주니 여간 귀하고 부러운 게 아닙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숱한 역경을 딛고 품어 정신

<24 페이지로 계속>

기도문

주일예배 대표기도



김광철
권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연약하여, 지난 일 주일 동안을 주님이 가르치신데로 살 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것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자비로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2년동안 온 세상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온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않고, 수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을 지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와중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말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뉴멕시코의 광야에 세워진지 40년이 되는 해 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여러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알버커키에 많은 노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닥아오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능력과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알버커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 02.20. 주일 ■

은혜아니면 !

<21 페이지에서 계속>

동하고 있지만, 지구처럼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 속도의 원심력에 지구 밖으로 튀어 나가 우주의 고아가 되지 않도록 더 큰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대기가 마치 담요같이 감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을 계속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일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최고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

아프세요?

<23 페이지에서 계속>

차린 사람들로 해서 상처는 치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살 수 있었구나 싶습니다.
이제 기초가 잔뜩 삐뚤어지고 휘어져서 얽히는 문제만 많던 이 동네에서 서럽다고 투덜거리며 서툴고 초라하게 머물렀던 자리에도 봄볕이 환하게 비취니 그런대로 그때가 사랑스럽고 그리워집니다. 살겠다고 버둥거려 온 수고들이 보석 같습니다. 돌아보면 다 오늘을 감사로,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버티어 준 보약들이니까요.
비록 뒤뚱거리는 나이일지라도 그 서툴렀던 것들을 조금씩 한 뼘씩 보듬으면서 고단한 길손들이 잠시 숨 고를만한 작은 그늘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횡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혈육을 잃는 등 커다란 슬픔과 생존의 위협으로 긴 터널을 지나고 보니, 이제야 목숨 걸 일들이 구별되는가 싶습니다. 살겠다고, 살려 달라고, 말씀을 듣겠노라고 엄청 해댔으니 이제는 아마도 횡재가, 살아있음의 감격이 예서제서 터질 낌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코로나를 완전 퇴치해 주시고, 우리를 저 높은 변화산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 이 문제 많고 할 일 많은 이 동네에 더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제야 할 일들이 보이나이다.’ 한번 여쭈어나 볼까? 아뿔싸! 따끈한 봄볕에 취했나 봅니다. ■

의학상식

암 치료법의 종류와 작용 원리

최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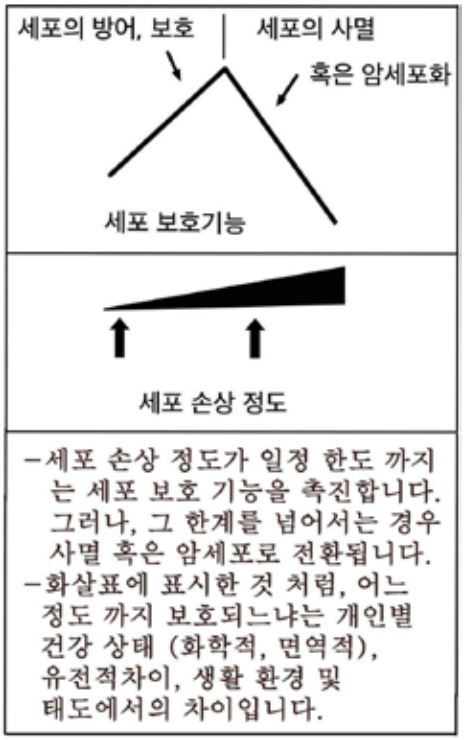
Pharmacologist, PhD
Dept. Neurology
UNM Health Science Center
(전) 일본 국립암센타연구소 방사능 생물부, 서울 의대 약리학교수실

많은 분들이 본인 혹은 가족이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투병 과정 가운데 궁금한 점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각 경우 마다의 세부적인 사안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고국에서라면 관련 강연들이 많이 있어서 전문가로 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으나 이 곳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암이 발생하는 원인들, 치료법의 원리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의 원인과 치료의 원리를 큰 틀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1. 세포의 특성

우리 몸 각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는 정상적인 경우 생성, 유지, 소멸이 일정 규칙 하에 진행됩니다. 이렇게 생성과 소멸이 있어야 용도가 더 이상 필요없는 세포는 제거하게 되고, 손상을 입었거나 노화된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여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세포의 특성으로는 1) 복제 및 증식 기능이 있습니다. 2) 유전자의 손상 및 세포 내 소기관의 손상을 어느 수준까지는 자체적으로 복구합니다. 3) 덧붙임 (redundancy) 기능이 있습니다. 한 기능을 위해 여러 장치가 있어서, 한 부분이 잘못 되어도 다른 부분들에 의해 고유 기능을 유지합니다. 4) 용도가 다 하거나 심히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사멸합니다. 5)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세포 자체의 기능으로 방어 복구합니다. 그러나, 과한 정도인 경우 세포는 암세포로 변형되거나 혹은 사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산등성이 모양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데 표1에서 정리하였습니다.

표 1. 자극과 인체 반응의 관계



2. 세포의 사멸 작용

세포의 복제/증식 뿐아니라 사멸시켜 제거하는 작용은 인체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는 특정 기능이 완료된 세포를 제거하거나, 손상 혹은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작용으로서 정상적인 신체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세포의 복제/증식을 촉진하고 사멸 작용을 억제하므로서 이러한 정상적인 세포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건강한 인체의 면역적, 생리적, 생화학적 작용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므로서 신체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 암세포가 자라서 암조직을 형성합니다. 암치료법 및 항암제를 개발하는 연구자에게는 바로 이 인체의 이러한 작용이 중요한 연구 목적점이 됩니다. 건강한 인체에서의 세포 사멸 작용은 아래의 작용을 포함 10여 가지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사멸 (apoptosis), 세포분열 억제(mitotic catastrophe), ferroptosis, oncosis, pyroptosis, 괴사(necrosis), necroptosis

3. 암을 유발하는 요인

첫째, 물리적 요인으로서는 인체가 높은 에너지 파동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주로 X-ray에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우라늄 취급 지역 혹은 탄광에 근무하거나 또는 과도한 야외 활동에 의해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자주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세포 내의 유전물질, 신호전달 물질, 세포 구성 성분 등은 산소, 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들이 높은 에너지의 파동에 반응, 활성화되면 세포 구조 물질을 파괴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예가 혈액암, 피부암입니다.

둘째, 화학적 요인으로는 발암성 혹은 돌연변이성 고체, 액체 혹은 기체 화학물질입니다. 접촉, 섭취, 흡입에 의하여 투입된 물질들이 인체의 유전물질을 변형하거나 세포 구성성분을 변형하는 경우입니다. 담배의 경우 니코틴 및 혼합재료의 산화로 부터 200 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발생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발암성입니다. 섭취하시는 음식 중 가공식품의 성분을 보시면 발색제, 보존제 등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식용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량은 허가기관의 독성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허가기관의 독성심사는 소형 동물을 사용하여 내분비/유전/신경/피부/면역/간/신장 독성 등을 검사하고 일정 요건을 통과하면 사용을 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드시는 모든 종류의 식용화학물질과 그 총량, 인체에 누적된 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질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고 보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각 소비자에 대한 맞춤 형태로 안정성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생물적 요인으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전자 및 세포 구조 변성, 유전적으로 신체의 방어 작용이 취약한 경우, 노화에 따른 신체의 방어 작용의 취약 및 합병증에 따른 신체의 취약성 등이 있습니다.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자궁경부암이 예입니다.

표 2. 발암 원인

구분	발암원 예	주요 작용	주요 예
물리적 원인	높은 에너지 파동 -방사선 -자외선	세포의 변형 촉진 유전자의 돌연변이 촉진 면역세포의 약화	혈액암 피부암
화학적 원인	-돌연변이성/ 발암성 화학물질	유전자 돌연변이 주요 단백질 변성	폐암 위암
생물적 원인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요인	변이에 의한 방어 작용 취약 면역 작용 취약	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4. 치료법의 종류와 작용 원리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 이외의 방법은 표3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물리적 방법으로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파를 암조직 부위에 쪼이므로서 암세포의 분열 증식을 저해하거나 세포의 사멸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둘째, 화학적 방법으로는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세포의 복제, 증식 및 형태 구성 단계 중 특정 단계를 차단하므로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셋째,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특정 암세포에 반응하는 항체를 투여, 인체의 면역반응을 유도, 암세포를 특정적으로 제거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5. 예방

대표적 치료법을 위에 열거하였습니다만 어느 방법도 부작용 없는 완벽한 방법 및 약물은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건강 상태, 유전적인 상태, 주변의 발암 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하려는 의지, 생활 환경, 직업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방법을 바꾸거나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이 개인 차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방하여야 할까요? 위의 발암 요인을 분류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적 요인들은 빠른 시간 내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요인 혹은 화학적 요인들은 직업 환경, 주거 환경, 식생활 습관을 점검하면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어 예방 차원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를 권하고, 드시는 음식물이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며 절제하시기를 권합니다. ■

표 3. 암 치료법

구분	대표적인 방법	작용 원리	기타
물리적	낮은 에너지 파동 -X ray -양성자파	복제 속도가 빠른 세포, 특히 암세포의 분열 억제 혹은 자가 사멸 촉진	암세포 인접 세포들도 영향 받습니다
화학적	항암제	복제 속도가 빠른 세포, 특히 암세포의 복제 및 증식을 억제함 -세포의 유전자 복제 억제 -세포의 구성 성분 생성 억제 -세포의 구조 손상	정상세포 중 복제 속도가 빠른 소화관 상피세포, 모발세포 등도 손상을 받으므로 구토, 모발 손실 등이 발생
생물학적	항체	목적한 암세포에 특정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사용, 면역 작용을 유도, 암세포제거	투여한 항체가 암세포 이외의 다른 세포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필

더 늦기 전에

최미나
알버커키연합감교회
집사

드높은 하늘에 하얀 줄을 그리며 사라지는 제트기를 바라보며 나의 삶도 저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구나하는 생각에 잠긴다. 왜 이렇게 빨리도 왔을까? 쉬었다가 천천히 와도 되는 것을... 아니 여기까지 오리라 생각지도 않았건만... 난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다. 벌써 70고개를 넘겨다보고 있으니 말이다. 젊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기와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나에게 "흑백 사진의 낡아진 필름"이 돌아가고 있다. 우리 엄마는 마흔 넷에 나를 낳으셨다.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낚시를 다녔고 산에도 오르곤 했다. 친구도 별로 없이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주위에 살고 있는 고모와의 생활이었지만 난 그냥 좋았다. 많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모든 면으로 너무도 까다로우신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어야 하는 엄마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철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의 저녁은 항상 늦은 독상이었다. 맛있는 반찬 특히 산에서 자란 더덕을 고추장으로 양념을 해서 석쇠에 구운 그 맛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생길 정도로 맛이 있었다. 다양한 생선 등 항상 아버지의 저녁상은 진수성찬이었다. 난 저녁상을 받으신 아버지 곁에 바짝 앉아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본다. 가서 숟가락을 가지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이 방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난 벌써 숟가락을 가지고 왔다. 결국 아버지의 독상이 아니라 겸상이 되었다. 엄마가 야단을 쳤다. "엄마 나도 아버지처럼 아무거나 먹기가 싫단 말이야." 아버지가 웃으신다. 그 후로 나는 아버지와 많은 겸상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난 아버지께 많은(?) 용돈도 받아 꽤나 부자였다. 저녁이 끝나면 난 아버지 어깨를 만지며 "아버지 피곤하지 내가 마사지해드릴께."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라 너는 시원하게 잘도 하지"하시고 따뜻한 온돌방에 엎드리시며 "허리도 좀 밟아주렴 하신다." 그 다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돈을 여러 장 꺼내시며 마음대로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지만 나는 큰 장 둘을 잡았다. 아버지는 "하나만 잡아야지" 하셨지만 "아버지 한 장은 어깨 마사지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아픈 허리를 밟았으니 보너스지 뭐"하며 달아나버리는 나에게 "그래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라"하신다.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오빠와 언니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20%에 높은 이자를 받았다. 돈이 들어오면 꼭꼭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모서리가 낡을 정도로 난 돈을 쓰지 않았다. 아니 써야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구두쇠라는 별명도 붙어 있었다.

아버지 엄마는 무신자였다. 나는 고모를 많이 따랐다. 항상 우리 엄마를 부를 때 "새댁아, 새댁아"라고 부르는 고모에게 나는 "고모, 우리 엄마는 새댁이 아니야 헌댁이야 우리 엄마도 할머니인걸"라고 했다. 그러면 고모는 "그래, 맞아 할머니지 하지만 네 엄마가 백 살이 되어도 나에겐 새댁이지"라고 했던 고모였다.

고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식들을 잘 키우셨다. 특히 외국으로 유학까지 보낸 훌륭한 자식들이 있었다. 대구법원에 판사, 의사, 박사 아들들을 둔 고모였지만, 그 고모의 모습은 너무도 너무도 초라했었다. 아들, 며느리, 딸들이 어떤 옷을 사주어도 고모는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들에게 옷은 물론 신발에 다 음식까지 다 퍼주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모의 모습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 화가 난 며느리가 "어머니, 그 옷 얼마 준지 아세요"하면 고모는 허허 웃으며 "그래 고맙다. 나는 넉넉하게 모두 많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너무도 많아서 난 그냥 주고 싶단다."라곤 하셨다. 그 후로 노후에 고모의 건강이 쇠약해졌다. 병 자리에 누운 고모는 엄마의 손을 잡고 "새댁아, 새댁아,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새댁도 교회에 나가야 해"라던 고모였다.

아버지도 건강이 쇠약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언니가 병원에 찾아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 하셨던 "교회"였다. 아버지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언니와 기도하며 눈물만 흘리셨다. 아버지와 언니의 기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언니가 이야기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남이 모르게 담배를 피웠다. 난 엄마에게 "엄마는 왜 담배를 파워야 해"라며 잔소리도 많이 했었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담배부터 찾는 엄마는 중독이 되어있었다. 어느 날 엄마는 조용한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하지만..... 여러 아이를 낳았지만 너는 임신 시작부터 낳을 때까지 음식은 커녕

<29 페이지로 계속>

전재기사 (한국일보)

'오징어 게임' vs. '오징어 도박'

레베카 김
남부뉴저지한국학교 교사
브래이버맨 센타 원장

'게임'과 '도박'은 함께 사용될 수 없는, 즐거움과 파괴를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단어다.

'도박'하면 라스베가스, 홈리스, 알코올 중독, 범죄가 함께 그려진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죽진 않는다. 다만 도박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돈을 잃게 되고 사회에서 고립된다. 개인적으로 거리에서 구걸하는 자, 공동체에서 가정을 깨는 자가 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 '한탕'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게임'하면 어린이같이 천진하고 순진해 보이는, 가족 친지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웃음과 화해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를 떠오르게 한다. 게임의 정의에 대하여 위키백과는 '… 즐기는 놀이', 나무위키는 '놀이 문화의 일종으로서 스트레스 해소 수단', 레지 피서메이 닌텐도 아메리카 사장은 '게임은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요즈음 넷플릭스에서 하늘로 뜨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있다. 필자는 '오징어 게임'은 아니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줄다리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삔 치기'등에 대한 동심의 추억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월3일자에 한국이 만들어낸 K팝스타 'BTS'와 '블랙 핑크', 영화와 드라마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한국이 전세계를 강타하는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기사화했다. 사람들이 보고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충족시켜주었고, 소득 불평등과 계급 갈등에 기반한 내용으로 한국만의 감성을 더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재미교포로서 문화콘텐츠의 강국이라는 표현, 자랑스럽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장기적출… 이렇게 잔인한 플롯이 '오징어 게임'에 들어갔어야 했는가? 의문을 제시해본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빚에 쫓기며 삶의 벼랑 끝에 서있는,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게임'이라는 순한 단어가 접근한다. 단 한 명에게 부여되는 상금 456억, 456명이 참가한다.

'오징어 게임'은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다. 목숨을 내건 도박. 게임이 도박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도박'으로 둔갑한다. 표면상으로 '오징어 도박'이라 했다면 상업적으로 흥행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게임'이라는 그 단어에 쉽게 걸려든다. '도박'이라는 말 대신 '게임'이라는 친숙한 말에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기에, 그래도 쉽게 그 게임에 목숨을 담보로 내논다.

문제는 한사람이 이기기 위해 그 '한탕'을 갖기 위해 몇백 명이 죽어야하는,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이 아닌, 라스베가스에서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사람의 목숨이 날아가는 '살인 도박'이다. 어떤 이는 말하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빚에 찌들려 죽기는 마찬가지, 누가 아느냐 내가 그 '한탕'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죽는 게임에 참가한다. 이건 틀림없는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다. 문화콘텐츠의 강국 대한민국,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제작할 수는 없겠는가?

한국일보 발언대 2021-11-12 ■

<16 page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는 어떤나라

취임했으며 재임을 시도했으나 2019년 선거에서 코메디언 배우 출신의 정치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패했다. 젤렌스키는 인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이란 TV 드라마의 주역을 맡은 배우였는데 드라마에서 얻은 인기로 2019년 대선에 출마하여 정식 대통령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2022년 2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에 우크라이나 공화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진입하라고 명령하고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푸틴은 또한 공식적으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고 했다. 2월24일 새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면 침공을 시작하고 다음날 러시아군은 체르노빌을 장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총동원령을 내려18세에서 60세 까지 남성은 출국을 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것이라고 했다. 여자와 어린이 100만명이상이 서부 국경과 접한 나라로 피난하는 사태가 1주일 사이에 일어났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은 전세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에서도 50여개 도시에서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

Corona Pandemic은 종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가?

신경일
목사
(전) UNM 병원Chaplain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2022년 호랑이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초반부터 시작한 Corona Virus로 인해 온 세계에 인명 피해와 우리의 생활 Lifestyle을 바꾸어 놓은 이 종말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에서 "온역" 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보낸 치명적인 질병 (Pestilence) 인 것입니다. 사망자만 미국에서만 50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5백만 이상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Virus는 중국 Wuhan 생체 실험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나 세계 인구 말살 정책으로 Virus를 퍼뜨렸다는 Conspiracy theory도 있어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micron Virus는 전파 속도는 빠른지만 치명율은 낮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Vaccine은 짐승표이다. 맞으면 지옥 가고 구원 받을 수 없다 하고 극단적인 말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Corona Vaccine은 절대 맞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과 성경 말씀만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때 복음의 마지막 선교 주자인 대한민국을 써서 유대인들을 선교 하고 계신 박영민 목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백석 교단)를 소개합니다. Covid-19 Pandemic 시대에 한국의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선교의 문도 닫히고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때 박영민 목사는 Online Youtube 를 통해 유대인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Aliyah Israel 회복 운동과 유대인 가정교회 100개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저희 부부도 한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유대인 목사를 Support 하고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코뿔소 TV를 검색하시면 서울 김포 영광 교회의 담임 이시고. World Bridge Mission 대표 이신 박영민 목사의 말씀과 사역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민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 몽골, 네팔 등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하시다가 "Restoration of Israel"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 세계 작전실에 7,000명의 기도 용사들과 생방송 Online으로 작전실 기도화를 인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Online healing Service 영상 치유사역 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십니다.

끝으로 Corona Pandemic 시대의 선교전략을 소개합니다

(1) 선교의 본질을 회복(복음을 전하는 것)
(2) 성숙한 영성과 야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선교
(3)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개인전도
(4)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image를 주는 개인전도
(5) Home chureh 를 튼튼하게 세우는 선교
(6)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선교
(7) 병든 사람을 치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70년도 초반에 성령 운동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Corona로 인해 6만여 개의 교회중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이 닫히고 선교의 문도 닫혀서 해외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실정인데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800만 교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Individual 선교사가 되어 위에 열거한 선교 전략으로 지구촌 온 열방을 구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27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을 맞이하는 휴거 신부(Raptured bride)가 되어 깨어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

더 늦기 전에

<27 페이지에서 계속>

물도 마실 수가 없이 힘이 들었단다. 담배를 피우면 속이 편안하고 살 수가 있었지"라고 말씀하셨다. "엄마, 너무 미안해 하지만 엄마의 건강을 위해 끊어봐"하고 난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엄마는 고모가 이야기했던 "새댁아, 교회에 나가야해"라는 그 말에 깊숙이 중독되었던 담배를 끊고 목사인 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고모는 물론 아버지도 엄마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셨다. 나는 늦어버리기 전에, 오늘도 조용히 기도한다. 너무도 부족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길 난 소망한다. ■

영어이야기 19

-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 상식 -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우리가 평소엔 별 생각이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사용하는것으로 전기를 꼽을수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에 대하여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기의 전압은 240 V(볼트), 주파수 60 Hz의 교류전압입니다. 직류(DC or Direct Current)전압인 Battery처럼 한쪽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방향으로 교대로 흐르는것이 교류(AC or Alternating Current)이며 방향이 바뀌는 횟수가 일초에 60번 바뀌므로 주파수는 60 Hz입니다. 전등을 위시한 많은 가전기기는 120 V를 사용하기 때문에, 240 V를 반으로 나누어 120 V도 사용하게끔 배선이 되어있습니다. 가전기기중 큰 전류와 전력을 요하는 에어콘(Air-Conditioner), Gas Range, 빨래말리는 Dryer, 더운물을 제공하는 Water Heater등은 240V 또는 220V 전원을 사용하기때문에 벽에있는 outlet와 전기코드의 plug 모양은 우리가 늘 보는 방안의 소켓과 모양도 다르고 조금 크며 대개 검은색입니다. 소켓(Socket)은

끼우는 구멍을 연상하면 되는데, 전등의 전구를 꼽는 socket, 전원을 꼽는 벽의 socket, 자동차에 있는 lighter socket, 머리뼈(skull)의 한 부분으로 눈이 있는 움푹들어간곳은 eye socket이라 합니다. 전원을 꼽는 벽의 electric socket을 미국에선 주로 (wall) outlet 이라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socket은 outlet이 될수있어도 outlet이 항상 socket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기코드 꼽는 outlet은 socket과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코드를 받아들이는 곳이므로 받는다의 뜻이 담긴 receptacle 이라고도 합니다. Outlet은 gas나 액체같은것을 밖으로 나가게하는 통로의 뜻이기 때문에 전원소켓을 단순히 outlet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Outlet엔 T.J. Max같이 특정 제품을 파는 소매업체들이 모인 상점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a fast-food outlet이나 a retail outlet 등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Retail은 소매점이란 뜻으로 clothing retail은 clothing store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방안에서 보는 outlet을 보면 표준형으로 구멍이 3개 있습니다. 길이가 다른 길죽하게 생긴 두개의 구멍과, 안전을 위해 땅과 접지되어있는 반원모양의 구멍이 밑에 있습니다. 예전에 공중전화를 걸때 동전을 넣는 길죽하게 생긴구멍을 slot이라 합니다. Casino에 가면 제일 많은것이 slot machine인데, 예전엔 주로 동전을 길죽하게 생긴 slot로 집어넣었기에 slot machine이라 부르게 된것인데, 지금은 card를 꼽거나 지폐를 넣는곳도 길죽하게 생겼으므로 slot machine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Outlet의 길죽한 구멍중 짧은것은 Hot line (Hot wire or Live wire)로 불리는데, 전기가 항상 존재하는 곳으로 이곳을 (Hot) 만지면 사람몸을 통하여 전기가 흘러 감전될수 있습니다. 약간 긴 slot은 Neutral선으로 전기가 나가는 곳입니다. 교류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것이 교대로 일어나는데, 정해져 있다는 것이 말이 않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기의 흐름을 이해하기위해 한 순간을 잡아 설명하는것이 크게 이론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게다가 Neutral선은 접지되어 있기때문에 Neutral선과 지면과의 전위는 거의 0V이지만 Hot line과 지면은 항상 교류 120V입니다. 전기적으로 지면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Hot 은 전기를 보내고 Neutral은 전기가 일을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두개의 slot 길이가 다른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재된 plug사진을 보면, 왼쪽의 iPad adapter는 두개의 prong이 같은 크기이고, 오른쪽 밑의 Toaster 코드는 두개의 prong크기가 다르며, 검은색의 TV 코드는 3개의 prong이 있습니다. prong이란 fork나 전기코드의 plug처럼 몇개의 뾰족한 끝을 가진 것을 나타냅니다. 전기는 전원에서 나가 일을하고 전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 두 가닥의 전선이 필요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Toaster, 전기스탠드, Hair dryer 등의 plug를 보면 한쪽은 다른쪽보다 끝이 깁니다. 그래서 긴쪽이 outlet의 긴 slot에 맞추어야 꼽힙니다. 즉 극성화(polarized) 되어있

는 plug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꼽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 기기의 Switch가 Hot wire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빵을 굽는 Toaster를 예를 들면, Switch가 Hot wire에 연결되어 있으면 Switch를 껏을때 전기가 완전히 끊어지지만, Switch가 Neutral선에 연결되어 있으면, Switch를 끄더라도 Hot line은 Toaster안에 까지 들어와 나가는 길만 있으면 나갈 태세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빵조각을 끄집어 내겠다고 knife나 fork로 Toaster안의 금속망과 접촉하면 몸을 통해 전기쇼크 (electric shock)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Switch가 있는 쪽을 Hot wire에 연결시키려고 plug가 한방향으로만 꼽히게 만든것입니다. 물론 제일 안전한 것은 전원코드를 빼고 손을 보는것이 100% 안전하기에, 특히Toaster는 사용치 않을땐 코드를 빼놓는 습관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침에 간단히 빵과 계란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많기에 식빵을 바삭바삭하게 살짝 굽는 Toaster가 부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기토스터는 1893년 스코틀랜드의 Alan Macmaster 가 발명하였는데, 한쪽이 갈색으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면, 뒤집어서 다른한쪽을 구운다음 손으로 스위치를 꺼야하는 구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이 빵을 들고 난로나 불가에 서서 빵을 데웠으니 불편하기 짝이없는 시대였습니다. 전기토스터가 나와 한층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한번에 한면만 구울수있고 바삭바삭하게 잘 익을때까지 보고있어야지 자칫 한눈을 팔다간 태우기 일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919년 미국의 Charles Strite가 양쪽으로 구워지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며 꺼지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사용하는 Pop-up Toaster를 발명하였습니다. 쳐다보고 있지않아도 알맞게 구워지면 저절로 꺼지는 당시의 혁신적인 이 Toaster는 식당가를 휩쓴후, 없어서는 않될 부엌기구로 자리매김을 하여 그의 생애 유일한 발명품인 Pop-up Toaster로 대박이 나는 바람에 Strite는 많은 부(富)를 얻었으며, 그가 발명한 토스터를 Toastmaster로 이름지었습니다. 곧이어 1920년 Wonder Bread회사가 처음으로 미리 자른(pre-sliced) 식빵을 내놓아 Toaster의 인기에 힘을 더했습니다. 딱딱한 빵은 칼로 잘 썰을수 있으나, 식빵같은 물렁물렁한 빵은 자르기가 아주 힘든데, 먹기좋게 미리자른 식빵이 때맞추어 Toaster와 함께 나와 주부들의 손길을 덜어주는 일대 혁신이었습니다.

구멍이 3개 있는 소켓의 아래쪽 반원모양은 집의 접지봉에 연결되어있는 접지선(ground)입니다. 냉장고를 예를 들면, 냉장고의 겉인 frame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냉장고의 Hot line에 연결된 회로에 이상이 생겨 금속인 냉장고 표면(frame)에 닿고, 이때 여러분이 냉장고 표면에 손을 대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전기가 흘러 감전됩니다. 그러나 냉장고의 frame이 접지되어 있으면, 우리는 땅을 만지고 있는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electic shock을 면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셈입니다. Laptop, smart phone, iPad등의 전원인 power adapter는 prong이 두개이며 크기가 같아 어느쪽으로 꼽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들 전자기기의 전원은 낮은 전압의 직류입니다. Adapter는 전압을 낮추는 변압기(transformer)겸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20V의 교류전압을 5V, 9V, 19V등 낮은 DC(직류)전압으로 바꾸어 주는데, 변압기의 1차(120V를 받아들이는곳) 와 2차(낮아진 전압을 내보내는곳)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있어 안전에 큰문제 없이 어느방향으로 꼽아도 같은 방향의 직류를 만들기에 두개의 prong 크기가 같습니다. Dryer나 에어콘이 사용하는 outlet은 구멍이 4개인데 좌우 두구멍에 Hot wire가 연결되어 240V를 사용합니다. 즉, 두개의 Hot wire를 통해 전기가 흐릅니다. 위에있는 구멍은 Neutral이고 아래 "ㄱ"자 모양은 안전을 위한 접지(Ground)선입니다. Neutral이 있는 이유는, Dryer를 예를 들면, timer나 여러 제어기능은 방안의 전기기기처럼 120V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코드 plug의 prong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것은 socket에 꼽았을때 쉽게 빠지지 않게 안에서 구멍에 약간 걸리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건물의 전기배선을 하는 전문직업인을 electrician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미국가정의 배선과정입니다. 사용전압과 주파수를 보면 미국, Canada, Mexico, 카리브해의 나라들과 남미 일부국가를 제외하곤 거의가 230V에 50 Hz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20V에 60 Hz의 전기가 들어옵니다. Plug는 나라마다 모양과 크기가 달라 여기에 맞추기위해 여행자들은 다양한 형태의socket에 사용할수 있는 travel adapter를 가지고 다닙니다. 다행인것은 laptop이나 phone

<34 페이지로 계속>

피지 선교사의 서신

이성일
Fiji 선교사
연합감리교회 목사

이 말씀을 붙들고 2022년을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오미크론의 새로운 유행으로 온 세계의

열려졌던 국경이 다시 봉쇄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피지는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졌습니다.

허공에서 맴도는 서류들

1월 8일 서류를 발송할 때 UPS에서 1월 10일(월)에 출발하여 1월 14일(목)이면 현지에서 수신할 것이라는 보증과 더불어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1월 31일에 도착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저와 아내에게 간절하게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 지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했습니다. 피지에 발도 붙이기 전에 "국경이 다시 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 서류가 Doraville, GA(1/10)에 출발하여, Louisville,

KY(1/11)-Ontario, CA(1/12) -Honolulu, HI(1/13)-Botany, Australia(1/14)-Auckland, New Zealand-(1/21)-Nadi,

Fiji(1/28)를 경유하여, SUVA, FJ(2/1)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허공에서 맴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인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보다 못해 1월 25일부터는 아침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UPS의 배달지연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던 마음을 갑자기 접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4일이면 충분하다는 서류가 23일 만에 담당자의 손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를 피지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면서, 현지인들이 보완하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는 시간, 비자를 받아 처리하는 시간, 비자를 받은 후에 이삿짐을 door to door service로 보내는 일,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짐들을 처리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맞물려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촉박하게 진행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어 내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피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UPS를 사용하셨음을 믿고 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적조현상

적조 현상은 물속에 들어온 노폐물로 인해 산소부족현상으로 어패류가

죽어가는 현상이다. 영적 적조 현상은 예수를 믿는 개인이나 집단 속에 현격하게 나타나는 "예수 결핍 증세"로 세속화 혹은 기복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아내는 내게 지식은 흘러나오는데, 그 지식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곤 한다. 바로 내게서 그런 예수결핍 증세를 지적한 것이었다. 전자는 태풍이 불어와 멀리 있는 신선한 바닷물과 섞일 때 산소부족현상으로 죽어가던 어패류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후자는 성령의 바람이 예수 믿는 개인이나 집단 속에 불어올 때 다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는 고백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한 사회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로 귀결된다. "하나님, 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결핍증세가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는 자기만족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땅히 러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다시 저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피지 업데이트

-비자서류가 허공에서 맴도는 동안, 피지감리교회와 협력사역하는 조남건 선교사님이 저의 사정을 지켜 보다가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서류 작업을 두 주간 안에 발품을 팔아 쫓아 다니며 사인을 받고, 월 7일 주간에는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34 페이지로 계속>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역대 최고 매출기록을 세웠다는데---

김준호
Fairview 교회,Tx
장로

1월 28일 아침 한국뉴스에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지난해 나란히 역대 매출기록을 냈다고 발표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 야! 정말 한국 경제가 장족의 발전을 했구나! " 라며 참으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는 6/25 동란을 겪으며 고생 고생하면서 살면서 잡곡밥으로 끼니를 때는 적이 많았지요. 그때 그 밥은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 군소리 없이 잘 먹었지요. 흰 쌀밥을 먹을 형편이 못 될 정도로 가난했지요. 그런데 그 잡곡밥은 흰 쌀밥보다 영양가가 좋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원자력 연구소 전자공학실 연구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졸병으로 연구소 내에 전자기기가 동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자공학 실에서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졸병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전자공학 실에서 뭐 새로운 Project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골칫덩어리를 고쳐서 다른 부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돕겠다고 했었지요. 그 후에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과학 분야 보좌관 Donald Hornig 박사를 대표 사절 단장으로 임명하고 한국으로 파견시켰습니다. 이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국 측에서는 원자력 연구소 전자공학 실장 이신 정만영 박사님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고 제가 영광스럽게도 수행원이 되어서 미국 사절단원들을 안내했지요. 그들은 한국 내의 여러 회사들을 방문하고 자세한 상황을 분석한 다음 Hornig 박사님의 결론은 미국 수행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먼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모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전자 산업만이 한국인들이 살길" 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자 산업은 다르다고 지적 해주셨습니다. 또

한 Hornig 박사님은 1945년 봄에 New Mexico 주 남쪽에서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을 극 비밀리로 할 때 detonator 실험을 성공하게 한 분이기도 합니다.

Hornig 박사 사절단 일행이 한국을 떠나자마자 정 박사님과 저는 곧장 반도체 연구를 서둘러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 박사님은 다른 많은 일들도 다루어야 하므로 제가 문헌 조사랑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찾아서 구입하고 즉시 연구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힘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첫째로 Solid Diffusion Furnsce 이었습니다. P type silicon single crystal에 N type material 로 solid diffusion시키는데 몇 시간하면 몇 micron 두께로 junction 이 만들어 지는지를 알아야 하고 diffusion 속도가 변하지 않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junction 두께를 정확하게 알아 내는 것이 또 문제였지요. 둘째로 Furnace 온도가 몇 도에서 diffusion을 시켜야 하는지를 찾아야 했고 온도가 24시간 동안 변하지 않도록 정전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발전기를 달아 놓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요. 셋째로 2inch diameter, 1.5 meter long quartz tube를 주문했는데 solid rod 가 와서 다시 주문하느라고 또 시간을 소모 했지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싸여 있었지만 다행히도 기대하던 결과를 얻어서 전자공학 회지에 두 번 발표했지요.

그때는 트랜지스터가 무엇인지 다이오드가 무슨 요물인지 한국에 알려 지지않았던 시기에 이연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연구야 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밑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역대 매출 기록을 성취하였다는 뉴스를 들으며 정박사님과 저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기여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했는데 전자기기가 고장났으니 빨리 자기네 연구실에 와서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빨리 못 고치면 원자로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아우성을 부리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

습니다. 한번은 원자로 실에서 급하게 불러서 가서 고장 난 기계를 열어 보니까 Vaccum tube가 부지기수 차 있었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빼서 check 하는데 몇 시간을 소모했는지 모릅니다. 북치고 장구 친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연구소에 출근하면 오늘은 또 누가 죽는소리를 할까하고 마음이 조마조마 할 때가 많았지요. 이렇게 바쁘게 일하며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제작하면서 정 박사님과 현안 문제들을 상의하였고 그분의 예리한 통찰력과 고귀한 인간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Hornig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한국인의 살길"을 그저 들어 주는 정도에서 끝 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살길이라고 깨닫고 연구를 성공 시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발 소발 하지 말고 copy부터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셨든 원자력 연구소 소장님과 예산 편성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삼성전자와 LG 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쉬지 말고 분투해서 더 큰 결실을 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쪽같은 구절이 수없이 많은데 이 구절이 더 많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

<31 page에서 계속>

영어이야기-전기상식

의 Power adapter나 Charger는 110V~240V, 50Hz/60Hz 등 다양한 입력전압에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전압을 낮추거나 높이는 transformer(변압기) 없이socket 모양과 크기에 맞는 여행자용 travel adapter만 있으면 됩니다. "adapt"는 새로운것이나 목적에 맞게 만들거나 바꾸며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다의 뜻으로 "to adapt a novel for the stage "는 소설을 무대용으로 각색하다의 뜻입니다. 전기 outlet을 우리나라에서는 콘센트라고 하는데, 이는 Concentric plug를 일본사람들이 콘센토로 부르는것을 우리가 따라 부르는 일본식 영어입니다. Thank you. ■

<32 page에서 계속>

피지 선교사의 서신

-Talanoa Culture in Fiji - Talanoa는 피지, 통가, 사모안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화나 논의 형식입니다. 딸라노아는 합의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기대 없이 사람들이 함께 반대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는

태평양 특유의 대화의 형식으로 토론의 매개변수인 포용, 화해, 상호

존중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결정에는 늘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최고 결정권자를 포함한 전체 회의에 가기까지 회의를 반복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여겨집니다. (Pacific ways of talk – hui and talanoa. http://www.communityresearch.org.nz/wp-content/uploads/formidable/robinson4.pdf). 그러나 시간보다 전체구성원의 이해와 승인을 중시하는 것은 talanoa 문화는 제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줍니다. 빠른 일처리를 중시하는 대륙 출신의 선교사인 저에게, 아주 사소하고 쉬운 것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회의를 통해에서 결정하자고 계속 미루는 현지인들과의 사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그들은 또한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주님을 자신들의 대화 모임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Needs:

1. 저희를 피지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2. 속히 비자와 더불어 이삿짐을 보내고 아파트를 정리하는 일들, 그리고 피지에의 도착과 정착까지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3. 피지에서 머물 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4. 탈라노아 문화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적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역이 되도록,

5. 함께 제자 삼는 선교사역에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가정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후원안내

https://advance.umcmission.org/p-2013-lee-sung-ii.aspx

저의 제자 삼는 선교사역이 지속되도록 선교사 개인을 후원하는 창구입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www.galileeabq.com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10:00 am (Sunday)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12:00pm 수요모임 11:30am
금요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식당 Korean Restau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주택융자 Loan Officer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중재서비스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A-1
日本の食品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 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리오란쵸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식당 Restaurant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r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스마트폰에서 "광야의 소리"를 만나 보세요!

SCAN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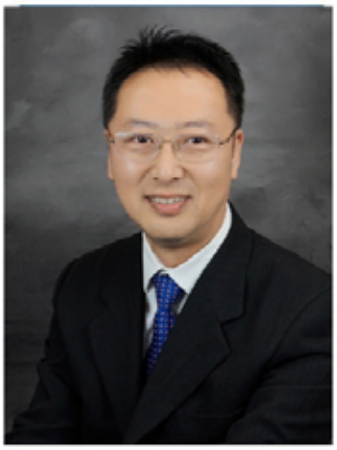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2년 3/4월호 발행일 : 2022. 3. 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C&Mc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읍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요.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택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